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 1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 2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 3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말로다 형용 못 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지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리
-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월 21일(토) 기도 담당 : 홍광진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윤지옥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303장 다 함 께
기 도 김홍수 집사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12:22~34 인 도 자
설 교 『하나님의 현존(presence)을 향유하는 삶』 이상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함 께
찬 송 304장 다 함 께
축 도 설 교 자

<사순절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3월 17일(화)	눅 10:1~20	이리떼를 이기는 어린양의 힘
3월 18일(수)	눅 11:1~13	하나님과 그 분의 나라에 집중하라!
3월 19일(목)	눅 11:33~36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3월 20일(금)	눅 12:22~34	하나님의 현존(presence)을 향유하는 삶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0년 3월 20일(금)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 금요일 이른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며 감사 찬양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므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라가 백척간두(百尺竿頭)와 같은 위기에 있을 때마다
구원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작금(昨今)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나라가 비상시국에 이르게 되었사오니
대통령과 관계당국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불안한 시국을 타개(打開)하게 하시고,
위급(危急)한 경제와 민생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체계가 긴밀하게 공조(共助)되고,
관련 법령 및 규제의 재검토와 중장기적 대책 수립이 범부처(汎部處) 차원에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133년 동안 새문안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매진(邁進)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처음보다 더욱 성숙된 사랑으로 이웃을 바르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서 속히 새문안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한국교회가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오직 예수! 더욱 사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